



예거 르쿨트르의 풍요로운 전통과 워치메이킹에 대한 깊은 전문 기술을 지닌 두 가지 특별한 타임피스 경매

*매우 진귀한 모델인 폴라리스 메모데이트는 2019 년 11 월 제네바에서 열릴 필립스 경매에,
특별한 모델인 럭키 13 은 2019 년 12 월 뉴욕에서 열릴 필립스 경매에 출품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발명 정신, 40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전문성, 워치메이커들의 기술적 기량, 1200 종 이상의 칼리버에 구현된 창의적인 상상력을 원동력으로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 세기 중반에 제작된 이 두 가지 시계가 보여주듯, 10 년이라는 시간은 당대의 정신을 반영해 신선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1950 년대와 1960 년대에 겪었던 수많은 변화 중에서도, 이러한 시계들은 기술 및 항공우주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다이빙이 특별한 도전에서 레저 활동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귀한 르쿨트르 폴라리스 메모데이트(1967): 2019 년 11 월 제네바 필립스 경매에 출품

1950 년, 예거 르쿨트르는 메모박스(Memovox: 기억의 목소리)라는 이름의 알람 기능을 갖춘 최초의 손목시계를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이 많은 인기와 신뢰를 얻게 되자 그랑 메종에서는 날짜 카운터, 셀프-와인딩 버전과 주차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기능을 장착한 시계 등 다양한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1959년, 다이빙이 전문 선수들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즐기는 레저 스포츠로 발전하면서 예거 르쿨트르에서는 메모복스를 다이버 시계로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랑 메종은 최적의 다이버 안전을 위해 내부 베젤에 위치한 타이머뿐 아니라 알람(케이스 진동) 기능으로 시각과 청각을 통한 알림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고안해냈습니다.

이를 위해 물 속에서의 알람 소리 전달을 최적화한 특허 받은 다중 케이스백을 제작했습니다. 외부 케이스에는 16개의 구멍이 있어 알람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손목에 진동이 느껴지며, 내부 케이스는 밀폐되어 무브먼트를 보호합니다.

미국에서는 폴라리스로, 유럽에서는 ‘몽트르 드 플롱게르 E859(Montre de plongeur E859)’로 알려진 E859 모델은 슈퍼컴프레서(SuperCompressor) 시계를 상징하는 크로스해치 패턴이 새겨진 3개의 크라운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라운은 시간 설정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크라운은 내부 베젤을 회전시켜 다이빙 시간을 측정하며, 세 번째 크라운은 중앙 디스크를 회전시켜 화살표를 알람 시간에 맞춥니다.

필립스 경매를 통해 소개되는 이 시계는 1967년에 미국 시장을 겨냥하여 제작된 것으로, 매우 보기 드문 다이얼 문구가 돋보입니다. 대부분의 다이얼에는 Memovox 라는 문구가 각인되어 있거나 LeCoultre 브랜드명을 제외하고는 문구가 없는 반면, 이 시계에는 Memodate 라는 문구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메모데이트 폴라리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워치메이킹의 가장 대조적인 두 가지 측면인 청각적인 기능의 섬세한 컴플리케이션과 스포츠용 타임피스에 필요한 실용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킹 기술은 그랑 메종의 풍요로운 전통을 일궈 온 개방적인 발명 정신을 상징하며 오늘날까지도 그랑 메종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플라리스 '메모데이트' Ref. E859: 매우 희귀하며 매력적인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다이버 손목시계. 알람과 날짜 표시 기능.
1967 년 제작.

특별한 르쿨트르 '럭키 13'(1962): 2019 년 12 월 뉴욕 필립스 경매에 출품

르쿨트르 "럭키 13"은 지구 궤도를 비행하는 최초의 미국 우주 비행사인 머큐리 세븐(Mercury Seven)의 역사적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시카고 반 미신 협회(Chicago Anti-Superstition Society)가 13 명의 미국 상원의원들과 함께 헌정한 시계입니다.

아워 마커마다 새겨진 숫자 13 은 머큐리-아틀라스 6 호 미션에서 활약한 프렌드십 7 호(Friendship 7)를 기념합니다. 프렌드십 7 호는 맥도넬 항공사(McDonnell Aircraft Corp)에서 제작한 13 번째 유인위성으로, 13 이라는 숫자를 다이얼에 새겨 넣어 사회적으로 불운이 따르는 것으로 여겨져 기피되는 숫자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1962 년 4 월 13 일 금요일에 헌정식이 열렸으며, 1962 년 10 월 13 일에는 연방의회 의사록에 기록되었습니다. 시계 위탁자는 시계 판매 수익의 일부를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의 존 글렌 행정대학원(The John Glenn College of Public Affairs)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르쿨트르 "럭키 13":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특별한 "럭키 13"은 다이얼의
중앙 초침을 비롯하여 시간 표시 기능만 지니고 있는 독특한 골드 소재의
손목시계로, 존 글렌 상원 위원의 소유물 처분 판매에서 소장인이 직접
구매함



예거 르쿨트르의 기술적 전문성과 더불어 이러한 특별한 타임피스의 이야기에 숨겨진 심오한 의미와 사람들의 연결 고리를 통해 시계에는 실용적인 목적 외에도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Jaeger-LeCoultre: HOME OF FINE WATCHMAKING SINCE 1833

고요하고 평온한 발레 드 주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메종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특별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구성원들이 쥐라 산맥의 뛰어난 경관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의 끝없는 내면의 열정을 펼쳐보일 수 있는 곳입니다.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에서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그리고 공예 장인들이 하나의 워치를 완성시키는 작업을 함께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워치메이킹을 향한 에너지와 협동 발명 정신에 힘입어 절제된 세련미와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정신은 1833년 이래 1,200개 이상의 칼리버를 발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예거 르쿨트르를 수많은 워치메이커들 중 가장 뛰어난 워치메이커로 만들었습니다.
